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8.13)

1.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결정 관련

□ [주요 언론 동향]

- 주요 매체는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다는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고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인용 보도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이트리스트’의 일본 제외 조치로, 일본에 전략적 상품을 수출할 때 특수한 경우 이외 원칙상 모두 신고해야 하고, 제출 서류는 기존의 3개에서 5개로 증가, 심사 시간도 기존의 5일에서 15일로 확대될 것임을 발표¹⁾
- 일본 외무성 고위 인사는 한국의 이번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을 지켜본 후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²⁾
- 한편 한국 매체를 인용하여 한국의 이번 조치가 일본에 충격을 줄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며, 한국의 대일본 수출에서 철강, 금속, 첨단기술 소재 등 전략적 상품 비중이 작으므로 오히려 한국기업에게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보도³⁾
- 환구시보(环球时报)는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고 보도⁴⁾
- 국제수출 통제시스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국가와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며(한국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역사문제로 일본이 경제

1) 「韩国政府决定把日本 移出贸易“白色清单”」, 『中国经济网』(2019. 8. 13)

2) 「韩国9月起把日本移出“白名单” 日方：将冷静应对」, 『人民网』(2019. 8. 13)

3) 「韩国9月起把日本移出“白名单” 日方：将冷静应对」, 『人民网』(2019. 8. 13)

4) 「韩国宣布将日本移出贸易“白名单” 被解读为报复东京」, 『环球时报』(2019. 8. 13)

적 보복을 하고 있지만 차분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문재인 대통령)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인용 보도

- 일본의 교도통신을 인용하여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이번 조치가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일 경우 WTO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도
- 또한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가 자사 방송 프로그램의 험한 발언으로 한국 네티즌의 불만을 사고, 동 브랜드의 한국 모델이 계약 중단을 요청하였다고 보도

2. 기타

- 제일재경망(一財网)은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가 한국 입장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치명적’ 이지는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국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⁵⁾
-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등한 보복 조치’, ‘국산화 강화’, ‘외교를 통한 해결’, ‘국제사회에 대한 소송’, ‘일본의 요구 수용’ 등 5가지 정책 대응이 가능함.
- 그동안 한국 정부가 ‘외교를 통한 해결’ 위주의 대응조치를 취해온 배경은 ① ‘대등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고 ② 국산화에 필요한 자금난에 직면했으며 ③ WTO 소송을 통해 단기 내 해결하기 어렵고 ④ 여론의 영향으로 역사문제에서 양보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
- 또한 향후에도 ‘외교를 통한 해결’ 기초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① 일본이 기세등등해 보이지만 사실상 양보 의지를 보이고 있고 ② 한국 정부는 일본의 압박에 대응함으로써 국내 정세를 단합시킬 수 있으며 ③ 미국이 한·일 분쟁으로 한미일 동맹에 영향을 주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

5) 「面对日本的出口限制, 韩国为何能保持冷静严肃应对?」, 『一财网』(2019. 8. 13); 반고연구소(盘古智库, Pangoal Institution) 동북아연구센터 연구원

- 한·일 양국은 갈등 범위를 반도체 관련 분야에만 제한시켜 전면적인 충격을 피하려고 하지만, 역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리스크도 존재
- 동북아 협력 차원에서는 한일 분쟁의 확대로 인해 제3국이 개입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동북아 정세가 더 복잡해질 것이고 한중일 협력에도 충격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
- 인민일보 해외망(人民日报海外网)은 일본의 한국관광객이 급감하게 되면 일본의 관광업 뿐 아니라 생산,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용 보도⁶⁾
- 한국의 일본 관광소비액이 2018년의 51.7억 달러에서 최근 20년간 최저수준인 1998년의 9.7억 달러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2020년 일본경제 성장률은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
- * 반대로 한국의 일본관광객 감소 역시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의 일본관광객이 39% 이상 감소될 경우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에 0.05%p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용 보도

6) 「韩国智库：赴日韩国游客少8成 日本GDP会下降0.1%」, 『人民日报海外网』(2019. 8. 13)